

[인물탐구]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 권영국 변호사 -

류하경 회원¹⁾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거리의 변호사’로 잘 알려진 권영국 변호사, 그는 참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어린 시절 여느 부모님과 선생님이라면 가장 먼저 가르쳤을 법한 것들, ‘약한 자를 도와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라’, ‘겸손하라’와 같은 최소한의 공동체 윤리들을 순수한 아이와 같이 울곧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른이 되고 세월이 지치면서 우리는, 아주 작은 도리들을 행하는 것이 그 어떤 실천보다도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권영국 변호사는 번거롭고 인정해주는 이 하나 없을 때도, 아니 오히려 그러할수록 단순한 정의들을 반드시 실천해낸다.

그는 늘 많은 이들이 잠에서 채 깨지도 않은 새벽에 출근한다. 일과 중에 삶의 현장 여기저기에서 그를 찾는 노동자, 고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재판준비를 미리 마쳐 놓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의 서면과 변론은 누구보다 치밀하고 진심과 열정으로 가득하다. 그는 여느 변호사와는 다르다. 그는 재판장에서만 누군가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길에서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을 변호한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의 벗”, “거리의 변호사”라 불린다.

과학자를 꿈꾼 ‘모범소년’

권영국은 1963년 강원도 장성군(현재 ‘태백시’) 자미원이라는 곳에서 광산노동자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5남매 중 셋째였다. 검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끼고 10



1) 노동위원회

리 이상 되는 초등학교를 걸어 다녔다. 초등학교 1학년 하반기에 문경시로 이사를 갔다. 아버지가 장성군 장성광업소에서 문경시 불정면에 소재한 광업소로 일자리를 옮겼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광업소의 잦은 임금체불과 아버지의 부정기적 이직으로 인해 집안은 몹시 가난했고 그로 인해 초등학교 4, 5학년 시절 점심시간에는 학교 수돗물로 허기를 채워야 하는 날들이 많았다. 수돗물을 아무리 마셔대도 허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매일공부'라는 제목의 일일 학습지가 최초로 생겼는데, 학습지를 보는 아이들이 부러워 어머니에게 학습지를 보게 해달라고 졸랐고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아들의 '열심'에 허락했다. 학습지 덕택으로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성적은 최상위권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반년 가까이 학습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수금사원에게 사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문경중학교 시절에는 독서반에 들었고, 학교도서관에서 주로 위인전이나 탐험가편을 많이 읽었는데 아문젠과 윈트겐 등 배고픈 탐험가와 과학자를 존경하며 장래 희망을 과학자로 삼게 되었다.

중학교 졸업 때까지도 집안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던 관계로 아버지의 권유로 인문계고등학교대신 졸업 후 '포스코' 취업이 가능한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포항은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했다. 1년간 친척집을 돌며 신세를 저야 했고, 1학년 말쯤 문경 출신의 선배 자취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은 학교와 자취방을 왕복하며, 주말에 성당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의 거의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국정교과서로 발행되던 사회와 역사교과서의 내용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새마을운동을 창시하여 보리 고개를 없애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경제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며 믿어 의심치 않았던 '범생'이었다. 태어나서부터 그 때까지도 대통령은 '박정희'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자리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걸로 알고 지냈다.



1980. 12. 포항제철공고 3학년 재학생
자습중 세계복합선임을 읽다니 ^^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부하의 총탄에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부'를 잃었다는 충격으로 수일간 슬픔에 싸여 지냈을 정도였다. 그에 앞서 같은 해 여름경 3학년 선배들이 두발과 교복 자율화를 요구하며 학교 옥상으로 쫓겨 올라가 데모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권영국은 학교 선배들을 향해 '할 일 없는 선배'들이라며 멀리서 비웃었다. 학생의 머리와 복장은 단정해야 한다는 학교 방침과 선생님의 지시에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져본 적이 없던 어린 권영국에겐 선배들의 집단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다가왔다. 데모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나 하는 '일탈행위'로 세뇌되어 있었던 것이다.

‘범생’이 ‘삐딱선’을 타게 한 ‘짹새’의 주먹질

그러던 범생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공고를 다녔으나 대학진학의 꿈을 놓지 않았던 권영국은 1981년 동일계 진학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 대학 분위기는 낭만적이기는커녕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1981년은 전두환씨가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해로 대학 내 시위마저 봉쇄할 목적으로 수백 명의 사복경찰들이 대학 내에 ‘주둔’했다. 그해 4월 어느 날 처음으로 학내 시위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빠바방” 최루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심하게 눈을 자극했다. 권영국은 반사적으로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학교 도서관을 조금 지난 곳에서 ‘짹새’(사복경찰을 부르는 속어)들 수명이 시위주동자로 짐작되는 선배 대학생들 끌고 내려오는 장면과 마주쳤다. 그는 ‘짹새’들의 제압으로 머리가 90도 가량 아래로 숙여진 채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마에는 피가 선명하게 흐르고 있었다. ‘짹새’들은 가죽장갑 낀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고, 끌려가던 그는 입을 옆으로 돌리며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전두환 살인마는 물러가라”며 안간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 때마다 그에게는 어김없이 ‘짹새’들의 주먹질이 날아들었다. 권영국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피 흘리며 끌려가는 처절한 한 장면 앞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더 이상 데모란 할 일이 없거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하는 짓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없다면 그 무서운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니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임을 권영국은 눈으로 목격한 것이다. 피 흘리는 현실과의 조우는 그 후 권영국의 생활과 관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82. 3. 대학교 2학년 재학시절
문경학우회 야유회에서
'바닷돌'을 불렀다.

이때부터 ‘범생’ 권영국은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수업을 ‘땡땡이’치고 비록 꿈무늬에 붙어서였지만 점차 ‘데모’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틀에 박힌 듯한 학교의 정규수업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었고, 반면 고향 선후배들과의 독서모임, 농촌 활동, 야학활동과 방학기간 동안의 공장 활동 등 수업 외 활동이 도리어 대학생활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군부독재정권의 억압적 통치 하에서 보낸 대학생활은 거꾸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민중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는 시간이었다.

6월 항쟁, 촉망받던 신입사원의 가슴에 불을 붙이다

데모에 참가했다가 경찰서에도 끌려가고 총장실 항의방문에 참여했다가 사진에 찍혀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당시 집안의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학비와 가계를 보조해야 했던 권영국은 1985년 군복무의 일환으로 병역특례가 가능한 중공업 회사에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동제품을 생산하는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현재는 주식회사 풍산)에 공채에 응시하여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대학시절 강제징집되거나 학교로부터 제적당하여 추방당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 늘 마음 한 구석을 맴돌았다. 풍산금속에 입사한 권영국은 첫 근무지로 울산 소재 온산공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회사로부터 주목받는 신입사원이었으나, 첫 발령지에서 맛닥뜨린 공장의 현실은 관행화된 연장근무와 상명하달식의 권위주의적 문화였다.

대학시절 야학을 통해 어설픈 노동법이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공장의 생산계획에 맞춰 당연시되고 있던 초과근로에 문제의식이 발동했다. 그 문제의식 때문에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개인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수개월 동안 계속된 정시퇴근은 상사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고 상사로부터 수차지적을 당해야만 했다. 당시의 한 에피소드. 1987년 여름, 88올림픽을 한 해 앞둔 시점에서, 미국 국민들의 TV 시청시간을 고려해 올림픽 경기시간을 한 시간씩 앞당기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출퇴근시간을 한 시간씩 앞당기는 것을 전제로 해 예행연습을 한 적이 있었다. 소위 '서머타임'이라는 것이었다. 한 시간씩 출퇴근시간을 당겼으니 출근시간은 오전 8시, 퇴근시간은 오후 5시였다. 개인적으로 정시퇴근을 고집하고 있던 권영국은 심히 곤궁한 처지에 빠졌다. 오후 5시면 해가 중천에 걸렸는데, 그 밝은 대낮에 혼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그 난감함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머리 뒤통수로 쏟아졌다.



1988. 가을 풍산금속 온산공장 재직시절
풍산노동부 사무실 개원들과 함께 산하에서...

입사 3년차가 되던 1987년 6월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시위는 울산을 비롯한 주요 지방도시로 확산되었고, 6월 중순 어느 날 울산 시내에서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권영국은 고민할 것도 없이 다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6월 29일 '노태우 항복선언'이 있기까지 퇴근 후 거의 매일같이 집회에 참여했다. 매일같이 자정이 되어서야 버스를 타고 사택으로 귀가를 하곤 했는데, 옷에 묻은 최루탄 때문에 버스 안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신

재채기를 해댔다. 울산에서도 마침내 시위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주리원백화점 앞 도심을 관통하는 가슴 벅찬 경험을 하기도 했다.

1987년 6월 민주화투쟁은 권영국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소극적이었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6월 민주화투쟁에 이은 7, 8, 9 노동자대투쟁은 풍산금속 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 해 7월 말경 권영국이 근무하던 온산공장에서도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종전 사우회 구성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선점하는 바람에 현장 중심의 민주노조설립은 수포로 돌아갔고 비자주적인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 때부터 노조 대의원들을 만나가며 ‘노조위원장’ 불신임 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 교체 움직임에 위협을 느낀 회사는 같은 해 10월 1일자로 권영국을 포탄 제조공장인 안강공장으로의 전보를 명령했다. 10여 일 동안 전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불신임 대상이었던 노조위원장과 집행부에서 권영국을 보호해줄 리가 만무했다. 회사의 전보명령은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인 것이 명백했지만 계속 전보명령을 거부하면 회사 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가 될 것이고 해고되면 징집될 것이 명확했다. 병역특례 중이었던 권영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 12일 첫 발령지였던 온산공장을 뒤로 하고 안강공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동판과 동파이프 등 민수제품을 생산하던 온산공장과 달리 안강공장은 포탄을 위주로 생산하는 군수공장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부터가 판이하게 달랐다. 공장 바깥쪽은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그 바깥쪽에는 전경경비대가 경계를 서고 있었다. 정문까지의 출입로에는 바리케이트를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마치 군부대로 들어서는 느낌을 주었다. 권영국은 생산부서가 아닌 품질관리부로 배정을 받았다. 하지만 권영국에게는 이렇다 할 업무도 과제도 주어지지 않았다. 회사는 권영국에게 사택을 배정해주었는데 휴일이면 회사 교환원을 통해 룸메이트에게 권영국의 동선을 확인했다. 권영국은 회사의 요주의 인물로 전보 온 날부터 감시를 받기 시작했다. 신경은 쓰였으나 개의치 않기로 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안강읍(경주시 관할)내에 있던 안강성당을 다니기로 했다. 권영국은 온산공장 시절 울산성당에서 성당교리를 듣고 영세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성당 청년회에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경주지부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풍물에 심취해있던 청년들도 있어 서로 뜻이 잘 통했고 쉬이 친해졌다. 권영국의 제안으로 안강성당 청년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회 모임을 조직하기로 하고 매주 일회 독서모임을 가졌다. 성당 청년들의 독서모임이 안착된 후 같은 읍내에 있던 교회 청년회에 제안하여 연합 독서토론회로 확대했다. 매년 20~3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독서토론 모임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독서모임 구성원 다수는 87년 12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공정감시단에 참여하여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권영국은 이일로 안강공장 생산본부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둘래 아니면 조용히 있을래’ 양자택일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이듬해인 88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민정당 국회의원 후보가

공장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 순회 유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연설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었다. 권영국이 근무하고 있던 안강공장 101부 앞 공터에도 임시 연단이 설치되었다. 그 자리에 동원되었던 권영국은 연설을 끝내고 연단을 내려오려던 민정당 후보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이곳은 선거연설회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캐치프레이저’는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연설회가 허용되지 않는 공장에 들어와 회사 공장장의 안내를 받으며 근무시간 중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후보는 공장 출입은커녕 노동자들에게 나눠준 선거 홍보물마저 정문에서 회사 경비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고도 공정한 선거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곳 근로자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여당의 편파적인 선거운동과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현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권영국의 항의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권영국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삼시간에 공장 노동자들에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읍내 주민들에게도 알려졌다. 기울어진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오던 안강공장 노동자들에게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며칠 후 부서의 부장은 권영국에게 “권기사, 왜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나”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 권영국은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 후에도 권영국에게는 실질적인 업무나 과제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번은 권영국의 직속 상사였던 차장이 수명의 선배기사들의 손을 거쳤지만 미해결로 남아있던 문제 하나를 해결해보라며 과제로 던져주었다. 벽두께가 얇은 특정 탄피의 경우 사전에 원소재에 대한 윤활처리를 하지 않으면 얇은 두께로 압신하는 공정에서 탄피가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윤활공정을 거치지 않고 얇고 긴 탄피를 원소재에서 바로 압신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었다. 권영국은 실험계획법을 동원하여 빠른 시간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냈고 압신 전 윤활공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부터 상사와 직원들은 권영국을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미 들판에 불씨는 던져졌습니다. 꺼지지 않을 겁니다”

성당과 교회 청년들과의 독서토론 모임이 거듭될수록 약간의 공허함과 함께 현실과의 접목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권영국은 총선 전부터 독서토론회 구성원 중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다니고 있던 청년들 일부와 알고 지내던 현장노동자 약간 명을 추가하여 8인회를 구성했다. 8인회는 안강공장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직접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8인회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발각되고 말았다. 당시 안강공장에서는 가방의 반입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참하고 온 가방을 경비실 옆 빈 공간에 두고 공장 안으로 출근을 해야만 했다. 민주헌

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경주지부에 가입해 활동하던 청년도 8인회의 일원이었는데, 그가 출근길에 두고 간 가방을 회사 보안과 직원들이 몰래 뒤져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가방 안에는 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든 홍보물과 '전태일 평전' 등이 들어있었고 수첩에는 8인회의 명단과 회의 내용이 소상하게 적혀있었다.

그 후 권영국은 공장장실로 불려갔고, 공장장은 다짜고짜 태안반도로 가라고 했다. 태안반도는 풍산금속의 또 다른 공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산된 포탄을 직접 발사하여 성능테스트를 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안흥시험장이었다. 하늘이 노래졌다. 갑자기 역울함과 서글픔이 밀려들었다. 권영국은 공장장에게 “풍산 같은 큰 기업에서 무엇이 두려워 나를 이렇게도 못살게 구는 겁니까. 회사가 정당하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며 한참 동안 탁자를 치며 통곡을 쏟아냈다. “내 한 사람이야 격리시킬 수 있겠지만 이미 들판에 불씨는 던져졌습니다. 결코 그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일어섰다. 권영국은 1988년 7월 7일 회사에서 권영국을 감시하도록 붙여준 간부직원 차장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태안반도로 떠났다. 옛 선조들이 유배지로 향하던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았으나 헛헛한 느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여러분이 가라고 하지 않는 한,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태안반도로 쫓겨 간 지 10여일이 지난 그해 7월 18일경, 공교롭게도 안강공장에서 폭약을 제조하던 노동자 정구일이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줄곧 정권의 비호를 받아온 방위산업체 풍산금속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가족들은 장례를 미룬 채 “풍산금속 안강공장은 치외법권 지대인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안강공장의 실태를 폭로했다.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뿐만 아니라 공장의 안전대책 마련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했다. 회사와의 협상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7월 말경까지 사태는 지속되었다.

태안반도에 고립된 채 사고소식과 이후 협상 과정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권영국은 7월 28일 경부터 여름휴가를 맞게 되었다. 권영국에 대한 감시역할을 겸하고 있던 차장은 여름휴가기간 동안 자신과 같이 전국 순회 여행을 가자고 요구했다. 권영국이 휴가기간 동안 안강공장 노동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권영국은 잠시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겨우 이틀간의 말미를 얻어 포항(안강공장과 인접해있다)으로 내려갔다. 8인회 동료들을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그때서야 권영국은 “풍산금속 안강공장은 치외법권 지대인가”라는 제목의 유가족 유인물을 보게 되었고, 보상 문제가 여전히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당시 3명의 동료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안강공장의 열악한 근로실태를 외부에 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유가족들이 만든 유인물을 안강읍 내 담벼락 곳곳에 붙

이기로 했다. 그리고 권영국은 감시역을 담당 하던 간부직원 차장을 만나러 대전으로 떠났다. 차장이 요구한 전국 순회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권영국은 며칠 지나지 않아 순천 송광사에서 안강공장에서부터 긴급한 호출을 받았다. 동료 중 2명이 야밤을 틈타 안강읍 내 담벼락에 곳곳에 유인물을 붙이던 중 순찰 중이던 순경에게 발견되었고 그 사실이 공장으로 통보된 것이다. 이로써 권영국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들이 벽보 부착 공모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회사 명예훼손, 군사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1988년 8월 8일 전원 해고되었다. 벽보 한번 붙였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수년간 근무해오던 회사로부터 쫓겨났다.



권영국은 억울했다.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을 돕고 열악한 공장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외부에 붙였다는 이유로 4명을 해고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다. 권영국과 해고된 동료들은 해고 다음날인 8월 9일 오후 퇴근시간에 맞춰 '우리는 왜 해고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소식지를 들고 회사 통근버스가 주로 정차하는 파출소 바로 맞은편 우체국 앞에서 기다렸다. 첫날 소식지를 받아가는 공장 노동자들은 소수였다. 대부분 권영국을 피해 지나쳐갔다. 대신 파출소의 순경들이 나타나 소식지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권영국은 길바닥을 구르며 '잘린 우리 모가지를 붙여줄 수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고 약을 썼다. 경찰의 방해로 극복하지 못하면 복직 싸움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6일 후 권영국을 포함한 15명의 노동자들이 포항의 한 개척교회에 모여 풍산금속 안강공장 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어용'집행부가 차지하고 있던 풍산금속 노동조합에 안강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해고된후 :
현장 노동자들과 야유회에서
기차들이를 하는 모습 (1988.9.)
포항시 기계면 송순

공장지부 인준을 요청했다. 하지만 본부 노동조합은 지부 인준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지부 인준이 지연됨에 따라 매일 같이 퇴근시간에 맞추어 읍내 우체국 앞 도로 가장자리로 늘어선 채 해고자 복직과 지부 인준을 위한 짧은 야간집회를 이어갔다. 날이 갈수록 참여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하루는 야간집회를 마친 후 독서토론회 일원이었던 공장노동자의 자취집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 중 1인이 권영국에게 예기치 않은 질문을 해왔다.

“당신은 학출(대학 출신)로 우리와 다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당신은 언제나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순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권영국은 곧 정신을 수습하고 진심을 담아 “여러분이 내게 가라고 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날 우연히 내뱉은 약속은 지금까지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그에게 ‘준엄한 기준’이 되고 있다.

거의 한달 가까이 읍내 집회투쟁과 공장 앞 규탄 투쟁을 이어가자 도리가 없었는지 본부노동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안강공장 노동자들의 조합원 가입과 안강공장지부를 승인했다. 그 해 11월 12일 마침내 안강공장지부는 120여명의 상경단을 꾸려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서울본사 상경투쟁에 나섰다. 당시 풍산금속이 본사 사무실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던 충무로 소재 극동빌딩 12~13층 복도를 점거했다. 9일 동안의 점거투쟁 끝에 해고자 4명에 대한 전원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에 합의하고 공장으로 복귀했다. 노조 설립 후 첫 승리였다. 권영국은 그 해 12월 1일 품질보증부 개발담당으로 원직에 복귀하고, 안강공장지부의 교선차장에 임명되었다.



1988.11. 풍산금속 안강공장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김대중과 함께 서울 시가 충무로 소재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던 중 회사교섭 대표들과 교섭을 하는 모습

운명의 신은 복직을 시샘이라도 하듯 같은 해 12월 중순경 풍산금속 본부 노조위원장이 안강공장지부 교섭대표들을 배제한 채 회사와 결탁하여 은밀히 단체협약에 직권 조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안강공장지부는 즉각 단체협약 합의 무효와 재교섭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8일경 노태우 정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풍산금속 노동조합 안강공장지부의 파업은 그 첫 희생양이 되었다. 1989년 1월 2일 새벽 4시 5,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안강공장으로 진입했다. 권영국 또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집행부 7인과 함께 경주교도소에 구속되었고 업무 방해죄,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다. 같은 해 1월 말경 경주교도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또다시 해고되었다.

수배와 구속, 그리고 사법시험 도전

1990년 7월 21일경 장흥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후 그 해 8월 11일 포항죽도성당에서 서둘러 아내랑 결혼식을 올리고, 포항에 신혼집을 차렸다.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다. 역



1990. 8. 11. 포항 죽도성당 폐백식에서
부양라 함께

시나 예상했던 대로 같은 해 8월 말경 이번에는 풍산금속 동래공장의 파업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배되었다. 전혀 터무니없는 이유였으나 공안당국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 권영국을 조합원들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다. 6개월가량 수배생활을 하던 중 1991년 2월 초 대구역에서 내부자의 제보로 그곳에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주경찰서 체포전담팀에 검거되었다. 경주교도소에서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죄명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년을 꼬

박 복역한 후 1993년 2월 6일경 군산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같은 해 3월 결성된 전해투(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의 일원으로 2년 가까이 서울과 포항을 오가며 복직투쟁을 벌였으나 역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복직싸움을 접게 되었다.

향후 생활대책과 진로를 모색하던 중 우연히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고향 선배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선배에게 진로와 관련한 고민을 얘기했더니 대뜸 사법시험을 준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권영국은 아내와 상의 끝에 3년간의 기한을 정하여 사법시험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1995년 11월 아버지의 고향이자 아내의 고향이기도 한 포항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전세방으로 상경했다. 아내는 이삿짐을 실은 5톤 트럭 앞자리에 앉아 연신 뒤를 돌아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내가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꾸리고 권영국이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한지 만 3년이 되던 1999년 12월경 제41회 사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 합격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뿔뿔이 기뻐다. 아내의 기쁨이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아내의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변호사의 첫걸음, 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

2002년 1월경 2년간의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하고 진로를 모색하던 중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계기가 발생했다. 서초동 소재 한울합동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으로 하고 사무실로 면접을 보러가던 날 아침 버스 안에서 민주노총 조직실에서 법규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권두섭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면접에 앞서 잠시만 만나자는 전화였다. 권변호사는 커피숍에 마주앉자마자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 기획안'을 내놓으며 법률원 설립을 제안하고 돌아갔다. 권영국의 애초 구상은 3년가량 일반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송기술도 배우고 고생한 아내를 위해 돈도 벌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구상은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의 필요

성'이라는 '대의' 앞에서 심하게 흔들렸다. 권영국은 무려 3주 동안 아내의 눈치를 보며 속앓이를 해야 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아내는 마침내 한마디 했다. “어휴! 이 화상아, 내가 당신을 어찌 말리겠노. 당신 알아서 해라.” 아내의 우회적인 승낙이었다.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손에 들어온 떡을 스스로 놓아버린’ 셈이 되었다.

2002년 1월 결국 권영국은 한울합동법률사무소에의 취업을 포기하고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현 민변 노동위원장), 권두섭(사법연수원 29기, 현 민주노총 법률원장), 김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다산)와 함께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같은 해 2월 1일 민주노총 법률원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변호사로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권영국은 초대 법률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권두섭 변호사에 따르면 권영국은 노동운동의 경험과 연륜이 두루 고려되어 처음부터 법률원장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법률원이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2년 2월 26일,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가스, 발전 등 3사 노동조합의 연대파업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중 발전노조는 38일간의 기나긴 파업을 전개해야만 했다. 당시 발전노조 파업에는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파업전술은 전례가 없던 산개파업 방식이었다. 산개파업이란 한곳에 모여 벌이는 직장점거 파업방식과 대조되는 것으로 5~10명이 한 조를 이루어 조장의 통솔 하에 유랑을 하면서 벌이는 파업을 말했다. 산개방식을 택한 이유는 당시 정부와 검경이 파업참여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즉시 발전소로 복귀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발전소로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면 파업의 효과가 축소될 뿐 아니라 파업참여 조합원들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보았다. 아니 그보다도 발전기가 언제 멈춰 설 지 모른다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파업이 진행되던 3월 내내 전국 각지로부터 조합원들의 연행 소식이 끊이지 않고 올라왔다. 권영국은 당시 발전노조 담당변호사였기 때문에 발전노조 상황실에서 취합된 소식들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다. 출근하면 언제나 10~20명씩의 연행자 명단이 올라와 있었는데, 어제는 강릉, 오늘은 수원, 내일은 삼천포 이런 식이었다. 많을 때에는 하루에도 수회 전국 곳곳에서 연행되었다는 소식들이었다. 발전노조 담당변호사는 권영국 한 명이었고, 법률원 변호사들을 모두 합쳐도 4명이었기에 전국곳곳의 연행자들을 접견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전화접견'이었다. 권영국은 조합원들이 연행된 경찰서 수사2계(노동공안시국사건 담당 부서, 현재는 지능팀으로 명칭 변경)에 먼저 전화를 하여 수사2계장을 찾았다. 조합원들을 연행한 이유와 죄명, 인원수를 묻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연행된 조합원들 중 대표자를 바꾸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미 서울에서도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나서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해주고 유도신문에 응답할 필요가 없음을 자세히 고지했다. 나아가 경찰조사관이 '업무복귀서'라는 서류를 내밀고 서명하지 않으면 구속할

거라고 협박하면 겁먹지 말고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되겠느냐고 항의하고, 계속 그러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같이 맞대응을 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연행된 조합원들에게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경찰서로 전화하여 연행된 조합원들을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면 당신이 변호사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왜 조합원을 바꿔주어야 하느냐, 수사 중이므로 전화를 바꿀 수 없다는 등 냉담한 대답을 듣기 일쑤였다. 하지만 경찰관의 비협조적인 대답에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수사계장이 안 된다고 거부하면 수사과장을 찾고 수사과장이 안 된다고 거부하면 경찰서장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100% 전화접견을 성공시켰다. 그 때문에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모두 권영국 변호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지니고 있었고 전화접견 덕분에 권영국 변호사는 발전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또 하나의 별명 ‘타 넘어 변호사’

발전노조와 조합원들은 38일간의 파업 이후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호동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십 수 명이 구속되었고, 348명의 노조간부 및 열성조합원들이 해고되고 파업에 참가했던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 동시에 발전회사는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가압류와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그 여파로 인해 현장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은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권영국은 발전노조 집행부와 해고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요구했다.

“소송은 법률원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방어할 테니 변호사들에게 맡겨두고, 여러분은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내외적으로 해고와 징계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에 맞서 싸워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권리구제를 전적으로 소송에 의탁하게 되면 여러분 중 일부는 구제될지 모르지만 노동조합은 결국 무력화되고 교섭을 통한 집단적 해결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고자들의 복지투쟁을 통해 위축된 현장분위기를 전환하고 노조의 조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발전노조 조합원 법률교육을 위해 당진화력발전소에 해고자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다. 발전소에서는 철문을 닫아걸고 권영국과 해고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권영국과 해고자들은 외부인이므로 국가주요시설인 발전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권영국은 노동조합 초청으로 조합원 교육을 위해 방문한 것이고 해고자들 역시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 장소까지의 출입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권영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더욱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넥타이도 매지 않고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권영국을 조롱했다. 변호사 복장이 왜 그 모양이냐고 말이다. 살다보면 별일이 다 있지만 변호

사 복장에 시비를 거는 일은 처음이었다. 권영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강사이므로 마땅히 교육 장소에 출입을 해야 하고, 해고자들 역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노조 사무실과 교육 장소로의 출입은 마땅히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합원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무관리 직원과 경비들은, 자신들은 그런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위에서 지시한대로 할뿐이라며 막무가내로 출입을 막았다.

권영국은 굳게 닫힌 철문을 부여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고자들에게 소리쳤다. “타 넘어”라고. 권영국과 해고자들이 철문 위로 올라가자 노무직원과 경비들은 철문 안쪽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썼다. 그 때 마침 사내식당에서 강사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사정을 전해들은 조합원 수백 명이 무리를 지어 정문 쪽으로 와주었다. 철문을 사이에 두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조합원들은 닫힌 철문을 열어젖히고 해고자들과 권영국을 철문 안으로 맞아들였다. 이 날의 싸움은 해고자들과 조합원들에게 큰 용기를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권영국은 ‘타넘어’라는 별명을 얻었고 해고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다른 한편으로 권영국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조위원장 등 조합간부들에 대한 형사변론과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재판이 있기 전날에는 거의 밤을 꼬박 새다시피 하며 서면을 준비했다. 구속된 노조위원장 이하 조합간부들이 1심에서 전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회사가 제기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손해의 유무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조합간부들의 전원 석방과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승소는 이후 노조의 조직력과 현장투쟁력에서 빠른 회복을 가져왔다.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을 중심으로 한 현장투쟁력의 회복은 회사에 대한 노조의 교섭력을 크게 높였고, 해고소송에서의 승패에 상관없이 집단적 교섭을 통해 348명의 해고자들 중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역임하면서 권영국에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장소가 어디든(경찰서이든 법정이든) 관계없이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논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찰서 접견을 갔을 때 조합원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으면 참지 않았다. 도주할 의사도 없고 도주할 수 없는 곳임에도 수갑이나 포승을 해두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였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다. 권영국은 접견에 앞서 수갑과 포승부터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수사를 중단시켰다. 수사를 이유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말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노동자집회가 있을 때마다 법률원 변호사들은 늘 긴장해야 했다. 거의 대부분 경찰과 총

들이 있었고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접견을 위해 항상 대기해야 했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연행자 발생 시 변호사 접견이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노총 법률원이 생기고 난 직후부터가 아닐까 한다.

‘영등포구치소 재소자 폭행사건’에 민간조사관으로 참여

권영국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2004년 영등포구치소에서 교도관이 노동 사건으로 구속된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단체에서는 구치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가며 재소자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노동계는 강금실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영등포구치소 재소자 폭행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이를 통한 진상조사 약속을 받아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총 6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법무부 교정국에서 파견하고, 2명은 민간인을 추천받는 것으로 했다. 민주노총에서 권영국에게 민간조사관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리고 다른 한 명으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간사가 추천되었다. 권영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 재소자 폭행의 진상과 그 관련자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더구나 그 때까지도 독수리 타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권영국으로서의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부딪혀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고심 끝에 수락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으로서 법무부 교정당국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수적으로 우세한 법무부 조사관들의 ‘페이스’에 끌려가서도 안 된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하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파견된 법무부 공무원들과 회식이나 사적인 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사대상인 영등포구치소 소장 이하 교도관들의 임의적인 조사실 출입을 금하는 것이었다.

조사는 영등포구치소 내에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3인 1조(법무부 교정국 공무원 2인과 민간조사관 1인) 두 개조로 나눠 3주간 진행됐다. 느린 타자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퇴근한 후 집에서 미리 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날 질문할 사항과 예상되는 답변을 모두 타이핑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진술이 나오면 수정해나가는 방식을 썼다. 미리 조사할 사항과 내용을 준비해간 덕분에 법무부 조사관들을 내용적으로 주도해나갈 수 있었다. 법무부 조사관들은 같은 교정국 소속인 교도관들의 잘못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살 좀 하라며 권영국의 집요한 질문에 제동을 걸고 싶어 했다. 하지만 권영국은 교도관들의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잘못된 구치소 내의 관행을 시정하는 것이 동료에 대한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설득했다. 폭행 관련자와 그 뒷선으로 지목받은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했다. 조사기간 내내 구치소장이 조사실 앞에 와서 서성거렸다. 권영국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권영국은 눈길을 주지 않았다. 구치소장은 재소자 폭행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관리책임자였기 때문이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치소라는 특성과 물적 증거의 폐기, 그리고 파견된 법무부 조사관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교도관들의 폭행 혐의를 개별적으로 모두 밝혀내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재소자에 대한 폭행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소장과 보안과장을 포함하여 수 명의 교도관들에 대해 관리 및 가담 책임을 물어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이끌어냈다. 당시 영등포구치소장과 보안과장 등은 다른 곳으로 전보되었고, 영등포구치소의 분위기가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말을 출소한 재소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재소자들에 대한 교도관들의 태도부터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최장수’ 민변 노동위원장,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권영국은 3년 6개월가량 노동변호사로서 민주노총 법률원장직을 수행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당연직 상임집행위원과 중앙집행위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각종 회의와 운영방침의 결정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2004년 연수원 33기 변호사 4명이 법률원에 결합하였는데, 당시 법률원의 재정 상황으로 한 해에 1~2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4명을 다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겠다는 ‘협박’에 변호사의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당시 수입료를 받지 못하는 사건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법률원의 재정 문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권영국은 재정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해결방도를 제시하지 못한 책임감 때문에 법률원의 활로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만류되었다. 세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고서야 비로소 수용되어 2005년 8월 말경에 사직했다.

법률원장 재직 중이던 2004년부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관계로 법률원 사직 이후에도 노동 현안과 관련한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토론회 등에 참여는 지속되었다. 반년 간의 휴지기를 거친 후 2006년 2월 1일 서초동에서 두 명의 후배변호사와 함께 해우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법률원을 나오기는 했으나 권영국에게는 ‘노동변호사’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건이 해고와 임금, 노동조합활동과 파업으로 인한 분쟁 등과 관련된 노동사건이었다. 개업 후 2년 동안 100여건의 노동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법률원을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로 다



2006. 여름 대학산 한국대대지부
파업에서 발언하는 모습

수의 노동사건을 법정에서 변론하게 된 것이다.

2008년 ‘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구호 속에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노골적으로 기업편향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민변 내에서도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에 맞서는 강한 노동위원회의 출범이 요구되고 있었다. 회원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권영국에게 노동위원장직을 제안했다. 권영국은 2008년 5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그 때부터 2014년 5월까지 2회의 연임을 거치며 6년 동안 노동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민변 역사상 ‘최장기집권’ 위원장인 셈이다. 권영국은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처음 임명되었을 때, 민변 총회장에서 “나는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권영국은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는 소명감으로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사양하지 않고 기자회견과 집회 현장, 그리고 투쟁 현장에 참여했다. 실제 어떤 시기에는 ‘기자회견 전문 변호사’라는 농을 건넬 만큼 기자회견 최다 참여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는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를 권영국의 좌우명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변 노동위원장으로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곳이면, 그곳이 거리이든 투쟁 현장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노숙농성에도 함께 참여했다. 때로는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노하며 법정에서도 울분을 토해냈다. 기자회견 도중 연행되기도 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려다가 체포되어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하고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항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그 결과 권영국에게는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이 붙었다.



민변 노동위원장으로 마지막 임기 해인 2013년과 2014년에 맞닥뜨린 과제는 재벌대기업의 반노조경영과 사회 저변으로 확산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위장도급과 불법파견)를 폭로하고 이를 시정하는 일이었다.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의 출범은 세습경영과 노동조합 파괴 전략, 그리고 간접고용 위장도급으로 노동인권 유린과 공정사회 파괴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의 불법경영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영국이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로 활동을 시작하자 삼성그룹은 그에 대한 대응조직을 만들어 담당자를 배치하고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권영국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삼성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공정한 기업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독재 권력을 교체하는 것만큼의 각오와 희생이 따르는 일일지도 모른다. 권영국은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대해 갖는 많은 사람들의 공포감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위협과 공포감이

권영국을 흔들 수는 없었다. 권영국은 이렇게 말한다. “불의한 권력과 거대자본 앞에 굴종하지 않는 당당한 삶은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 그것은 내 인생의 화두이자 목표이다.”

재충전 포기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참여



민변 노동위원장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 사건이 터졌다. 민변 노동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후 다소간의 휴식과 재충전을 생각하고 있던 권영국은 그 희망을 접었다. 민변 집행부의 교체 시기였기에 더욱 그랬다. 권영국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예감하고, 일찌감치 민변 집행부에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4월 25일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5월 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같은 달 29일 언론 기사와 의혹을 집약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보고서’와 7월 21일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분석한 ‘국정조사 중간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특히, 국정조사 기관보고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미해결된 의혹 89가지를 제기해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9월 15일에는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위 위원 3인과 함께,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과 참사에 이르게 된 10대 원인, 그리고 진상규명 과제와 대책으로 구성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출간했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는 세월호 참사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엽말단적인 수사나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세월호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었다. 그동안 검토해온 결과물들을 토대로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대중서 형태의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었다.

권영국은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출간 이후 간헐적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다. 강연 막바지에 참석자들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고 권영국에게 묻는다. 이에 권영국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진 것인가? 그에 합당한 책임 추궁이 있었는가?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은 만들어졌는가?”라고 되묻곤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와 강제 조사권한의 보장을 담보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유족을 공격하는 야만적인 현실 앞에서 노란리본을 내려놓을 수

가 없다. 권영국은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검은 세력들과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시 용기가 필요한 시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용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권영국 변호사를 보며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용기란,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그를 통해 다시 배우고 있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시기를 보내며 지난한 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이루어 낸 민주주의의 근간이 또 한



번 위협받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사회는 우리에게 다시 변호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원초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이러하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곳에 대답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 권영국이 살아온 삶에 고스란히 녹아있다.